

방정기 홍천군의원 당선 인터뷰

“저출산·교육문제 해결 살기좋은 홍천 만들겠다”

1. 먼저 홍천군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홍천군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을 마음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홍천군민 여러분들을 섬기고, 지역경제를 살려내서, 홍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선거 공약 중 1순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여쭙보겠습니다.

홍천군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교육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임신(난임)·출산·보육 문제를 지자체가 책임 지원하며, 영·유아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모자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하고 안전한 산후조리를 위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형 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등 도시형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문제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영·유아 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사립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야 합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한 자유학년제,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교육당국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3. 그 외에 홍천군의원으로서 포부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과 여건도 숨 돌릴 틈 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와 새로운 시장의

출현 등 패러다임이 크게 변했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홍천군의 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정기 홍천군의원

4. 앞으로 홍천군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천실버신문 구독자들과 홍천군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홍천군 관내의 사회복지 시설의 사용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홍천이 청정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입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항상 홍천실버신문을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달라지는 내 고장

국도 44호선 홍천 연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지난 3월부터 홍천군을 지나는 국도 44호선에 위치한 남산교차로 개선공사가 시작되어 군민과 국도 통행자들의 기대가 크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44호선 홍천읍 연봉리 남산교차로 일원의 종단 및 급커브구간의 선형을 개량하고 남산교 간의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교차로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연봉지구에 들어서는 입체교차로는 44번 국도를 통해 홍천 시내로의 유입이 용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교통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도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공사명 : 국도 44호선 홍천 연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공사개요 : - 총 사업비 135억원
- 연장 1.1km, 폭 19.5m
- 교량 25m(2개소)
- 교차로 2개소
(입체교차로, 회전교차로)
- 공사기간 : 2019. 03. ~ 2022. 03. (36개월)
- 통행제한 일정(6월 10일 ~ 9월 30일)
- 남산교~연봉리 입구 전면차단
- 연봉리~서울방향 전면차단
- 인제방향 2차로를 왕복차도로 운영
- 10월 1일 ~ 2022년 3월 (준공일 까지)
- 남산교~연봉리 진입로 1차로를 2차로 확장(2차로 운영)
- 남산교 신설로를 왕복차도로 운영
(인제방면 차단 및 공사)



※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배수공 작업을 하기 위하여 남산교 및 연봉리 구간을 전면차단 합니다.

※ 상기 일정은 공사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 02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 03 - 경로당 탐방시리즈

- 04 - 문화예술
- 05 - 4차 산업혁명 시대
- 06 - 홍톡 : 홍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 07 - 스포츠, 우리 마을
- 08 - 인생칼럼, 건강정보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홍천군문화센터(홍천문화원)

“찬란히 이어온 홍천의 고유문화 계승 발전 시킨다”



◇홍천문화 발전을 이끄는 박주선 문화원장과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연봉리에 위치한 홍천문화원 전경.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폐쇄한 문화체육시설 단계적 개방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군민의 휴식처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어린 시절의 꿈을 만날 수 있고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홍천문화원을 찾았다. 홍천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홍천문화원은 홍천연봉도서관과 인접해 있어, 문화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통문화는 물론 사이버 멀티미디어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어제와 오늘의 참모습을 새롭게 조명하며 홍천군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 및 체험의 장으로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선약 없이 방문하게 되어 문화원 원장님을 만나 볼 수 있을까 내심 걱정하던 마음은 기우였다. 홍천문화원 박주선 원장(79세)은 “문화가 없는 나라는 융성할 수가 없어요. 명예직이지만 정시에 출근하여 문화원을 찾아주는 내방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홍천 문화 발전의 가교 역할에 전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홍천은 구석기 시대부터 중석기 문화유적지는 물론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산촌 문화를 꽃피우며 홍천 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고장입니다. 전통과 산촌문화의 고장, 무궁화의 고장, 홍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문화 사랑방으로서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홍천 문화 사랑의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2020 홍천문화대학’ 41개 강좌 운영

홍천군은 코로나19로 지난 2월 25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문화체육시설들을 76일 만에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군은 코로나19 준수사항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홍천문화원 문화교실 운영을 지난 5월 18일부터 재개하였다. 아직은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착용하며 철저한 방역아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겨울학기를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했던 문화교실은 ‘2020 홍천문화대학’으로 명칭을 새롭게 하여 모던댄스, 서예, 민요, 풍물 등 41개 강좌를 개강하였다. 홍천문화대학(학장 강철인)은 수준별 학습으로 오전10시, 오후 2시, 그리고 저녁7시반을 활성화 시켜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시대에 직장인들도 저녁이 있는 삶으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 사무국장 공개채용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6명이 지원한 가운데 최종합격자로 18년 경력의 문화원팀장을 지낸 김인숙(52)국장이 신임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어 문화원 운영에 활기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홍천문화원을 방문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 단어가 떠오른다. 이곳에서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다.

문화 사랑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홍천의 명소가 바로 홍천문화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홍천문화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홍천군민들.

경로당 탐방시리즈

대한노인회 홍천읍분회

48개 경로당 2,796명 활동 군내 최다 회원 보유



◇대한노인회 홍천읍분회 임원진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가운데가 박주순 회장, 왼쪽 맨 앞은 현종길 사무장)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방역 준수 매년 모범 경로당 선정 포상… 봉사활동도 활발

노인일자리사업 방역지침 이행 중단 없이 진행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확산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어려운 시기이다. 이러한 난국에는 정부를 믿고 정부의 수칙을 잘 따르고 협조해야 피해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즈음에도 대한노인회 홍천읍분회는 박주순회장 이하 이규춘 고문, 이상진 부회장, 현종길 사무장 등 임원진이 혼연일치가 되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이 사업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되는 점과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어려워지는 회원들을 위해 일부의 우려를 감수하고 부득이 진행하고 있었다.

회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박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매일 분회사무실에 출근하여 홍천읍 분회 산하 각 경로당에 정부의 방침대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형 거리두기 등을 지켜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홍천읍분회 산하 48개 경로당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분회의 독려를 잘 지켜주고 있어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없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

◇홍천읍 분회 임원진

직책	성명	비고
회장	박주순	1941년생, 군납업체 운영
부회장	이상진	1942년생, 홍천출생, 22년 교직
부회장	오삼옥	새마을부녀회장 역임
사무장	현종길	새마을지도자 역임
고문	이규춘	홍천농고 교감 출신, 희망1·9리 연합회장
감사	안상수	단위농협장 출신
감사	김종주	군 원사출신

고 있다.

임원진들은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성이 자신들에게 올 수도 있어 매일을 노심초사하며 걱정이 많다고 한다. 회원들이 앞으로도 정부의 지침대로 마스크쓰기, 생활형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여 청정 홍천에 앞장서는 노인회, 경로당 일원으로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홍천읍 분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솔선수범하는 홍천읍 분회

대한노인회 홍천읍 분회는 1974년 8월 20일 창립하여 현재 48개 경로당 2,796명(여 1,675명, 남 1,121명)의 회원을 주축으로 운영해 오면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여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경로당을 보다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시설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대 최순범 회장 이래 2017년에 취임한 현 14대 박주순 회장 등 역대 홍천읍 분회장들은 홍천군지회 산하 경로당 중 회원이 제일 많아 여타 분회에 모범이 되고자 솔선수범하여 왔다고 자부한다고 한다. 현 회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62년 군 제대 후 홍천에 정착하여 군납사업을 창업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제 대한노인회 홍천읍 분회 회장으로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사업체는 2남1녀의 자녀가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이 아직도 총괄 지휘하는 노익장을 자랑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갖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여 건전한 100세 시대 구현에 앞장설 것을 분회 회원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역대 분회장들의 노력의 산물인지 현재 홍천군 전체 경로당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홍천군지회 이형주지회장은 12·13대 홍천읍 분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홍천읍분회 산하 각 경로당이 모범이 되는 선도 역할과 현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규춘 고문은 작년에 사비를 들여 희망1·9리 경로당 명의로 각 경로당에 상례(喪禮), 가례(家禮) 등의 가정 필수본(家庭必修本)을 배포 하였다. 올해는 노인심신, 행동요강 등을 집필해 배포할 예정이라다.

현재 홍천읍 분회는 현황집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실태 점검,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구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운영체제를 정비하여 구축했다.

특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노후생활교육, 건강운동 활성화, 경로당 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등이 있다.

또한 매년 분회 산하의 모범 경로당을 선정 포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홍천읍 분회는 “경로당이 달라지고 있어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타 분회의 모범이 되도록 임원진들의 솔선수범과 열의로 가득 차 있고, 그 사기가 대단해 어르신들이라 여겨지지 않고 청춘들 같았다. 대다수 노인회가 여자 회원이 많은데도 임원진에 할머니들의 참여가 적어 아쉬웠는데 홍천읍 분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욕에 티라면 티일 것 같다.

박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홍천읍 분회를 통해 노인을 조금 더 이해하고 노인문화·정보 교류의 장인 경로당 노인공동체가 활성화되어 홍천읍 분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노인의 복지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들을 하고 있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미술단체 '새벽' 작가 7명 작품 전시 호평



◇ 2005년 창립된 미술단체 새벽이 주최한 '연리지' 전시회 포스터(사진 왼쪽)와 전시회 개막식 모습.

◇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허필홍 홍천군수.

글과 그림 어우러진 작품 잔잔한 감동 선사 허필홍 군수도 찾아 문화계 발전 관심 표명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연리지란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한 홍천 미술관을 찾았다. 문학과 미술의 만남이란 부제가 눈에 띄어 흥미로웠다. 2005년 창립된 미술단체 새벽이 7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깨끗이 단장된 벽에 단아하게 걸려 있는 작품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연리지

연리지(連理枝)의 말은 결혼식에서 주로 주례사에 많이 인용해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연리지는 부제에서 말하듯이 문학과 미술의 만남을 의미한다. 초대 글에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비죽거림이 레이어드 된 시점이라고 말한다. 문학과 미술, 그리고 겨울과 봄이 상호 오버랩 되어 점층적 기법으로 심화시킨 미술 작품이란 것을 표현하고 있다.

새벽

새벽의 연혁을 보면 2005년 창립 제1회 정기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2회의 전시회를 했으며 4회의 특별전도 가져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연리지란 주제로 개최한 제4회 특별전은 무척 신선하게 느껴졌다. 우선 새벽이라는 어휘가 주는 뉘앙스가 항상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느끼게 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2020년의 봄은 봄이었지만 우리가 느껴오던 봄은 아니었다.

새벽

멈추어 버린 시간 가로등만 깜박이며
간혹 지나가는 차량의 라이트가 눈부시다
정지되어 버린 시간
움직임이 사그라든 거리는
전쟁터에 몸을 숨긴 긴박한 요새다

-중략-

어느 순간 태양이 슬그머니 내다보는 세상은
침묵이 이어져 더 눈부시다
어느덧 새벽은 실종된 기억이었다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살아지고
또 어둠이 오고 거리에 어둠이 오고
거리엔 그리움을 홀리는 삶들엔
또 다른 새벽이 찾아올 것이다
내겐 너무 아름다운 새벽

- 신혜정 수필가의 새벽 중에서 -

예술인들의 예민한 감수성은 포스트 코로나 앞의 일상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단서를 달면서 초대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태고부터 혈관 속으로 흘러왔던 내밀한

감각들은 다층적인 현상으로 표출되어 우리를 선과 색으로, 덩어리로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기호화된 감각들과 만나는 지점들과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통합된 인간상을 꿈꾸게 된다.'라며 밝히고 있다.

허광자 화가의 여명과 내겐 너무 아름다운 새벽의 작품들과 홍천 문인협회 회원인 신혜정 수필가의 작품이 잘 매치되어 연리지의 의미를 증폭시키고 있다.

예술은 궁극에는 휴머니즘을 추구한다

왜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전시실을 찾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문학의 효용론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효용론에는 크게 공리설과 오락설이 있다. 공리설은 관람자의 삶에 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감동을 담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가로등은 밤새 제 몸을 밝혀 밤길을 비추며 이슬에 젖어 지칠만한데 여명이 사라질 때까지 쫓쫓하다. 허광자 화가는 신혜정 수필가의 새벽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한 뿌리에서 두 줄기의 거목이 자랐기 때문이다. 소소한 일상에서 소재를 취해 심미안을 더해 주고 있는 허광자 화가의 작품 세계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가 본다고 작가의 노트에서 말하고 있다. 새벽의 여명이 걷히면 동트는 아침을 맞듯이 우리에게 넘치는 희망을 던지시 제시해 주고 있다.

전시회에는 홍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허필홍 홍천군수도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었다. 군정을 이끄느라 겨를이 없을 텐데도 문화예술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문화예술인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4차 산업혁명 시대

카페에 가면 로봇이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非對面)이 추세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면 접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자영업 방식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소위 신자영업이라 불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음식점, 쇼핑몰, 편의점, 대형마트, 카페 등이 그것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술의 혁신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였지만 이번 코로나19는 그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 중 특이하게 로봇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무인 로봇 카페를 알아보자.

사실 로봇은 이제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힘들고 위험한 일을 로봇에게 맡겨 왔으며, 체스나 바둑을 두는 로봇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바이고 인천공항의 안내 로봇, 해파리를 제거하는 청소 로봇, 테러 현장의 인명구조 로봇, 수술을 하는 수술 로봇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카페에서 로봇은 어떤 일을 할까? 이미 1년 전에 인천 청라지구의 '카페 에이아이(Cafe AI)'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선보였지만 오늘 소개하는 카페 '스토랑트'는 세계 최초 24시간 무인 커피숍이다.

스토랑트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토랑트는 반도체 회사인 비전세미콘이 금년 5월에 오픈한 카페다.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되는 24시간 무인 로봇 운영 카페라 할 수 있다. 스토랑트란 이름은 'Smart Automatic Restaurant'을 줄인 말인데 말 그대로 스마트한 자동화 카페의 의미가 된다.

커피 주문은 키오스크(kiosk)에서

키오스크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사실 키오스크 시스템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친근하다, 은행의 자동인출기 화면, 터미널의 발권 화면, 면사무소, 동사무소의 민원 터치스크린 화면 등. 휴대폰도 터치스크린이니 키오스크 작동 원리라 할 수 있다. 즉 터치스크린 화면을 터치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화면에 익숙치 않은 노인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간단한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익숙해져 온 터다.

그러므로 무인 카페 스토랑트에 처음 들어와 커피를 주문한다고 해도 당황할 일이 전혀 없다. 먼저 키오스크로 가서 주문과 결제를 한다. 터치스크린을 눌러 음료와 자리를 선택한다. 결제까지 이루어지면 키오스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합 운영 시스템에 전달하고 스마트 바리스타 시스템으로 이동해 서빙 로봇 '토랑'이 음료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한다.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제조한다

키오스크와 바리스타 로봇, 서빙 로봇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미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마치 사람이 서로 대화하듯 연결되어 주문에서 커피 제조, 그리고 서빙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로봇이 한다고 보면 된다. 주문 내용을 인지한 서빙 로봇 토랑은 이를 스마트 바리스타 로봇에게 전해주고, 스마트 바리스타 로봇은 고객의 주문 내용대로 침착하게 커피를 비롯한 음료를 제조한다. 이 스마트 바리스타는 커피, 에이드, 밀크티 등 50여 가지 음료를 제조할 수 있고, 평균 제조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이며 정해진 레시피대로 제조하여 항상 같은 맛을 정량으로 제공하므로 까다로운 커피 마니아에게는 다소 취향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비대면이 일상인 이 시대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도 있겠다. 또한 재료 부족 감지 센서를 탑재하여 이 상황을 전달할 수도 있다.

서빙 로봇 토랑이 커피를 가져온다

토랑은 이미 키오스크를 통해 고객의 주문 상황을 인지하고 바리스타에게 제조된 음료를 전달받는다. 토랑은 음료 식별 기능이 있어 고객이 자리에서 음료를 집어 들면 언젠 음료인지 언급한다. 심

지어는 토랑으로부터 다음의 멘트를 들을 수도 있다. “차가운 아메리카노입니다. 음료를 저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겠는가. 토랑은 시스템상 설정한 경로로만 이동하지만 안전 기능이 있어 사람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즉각 피하거나 정지한다. 주문이 없을 때는 도킹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스스로 충전하기도 한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무인 매장, 로봇 식당, 무인 편의점, 수술하는 로봇, 돌봄 로봇 등 기술의 혁신으로 로봇을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면 이제 사람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 비대면 문화는 이런 로봇 산업을 더욱 더 극대화시킬 것이다. 일 자리를 잃어가는 인간들, 암담한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도해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 정부는 보편적 기본 소득제도 검토해보지 않을까.

참고: 1. 한겨레(2020. 5. 29.)
2. IT Chosun(2020. 5. 15.)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홍특: 홍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Talk)**이웃과 농사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음을 열면 이웃사촌이고 마음을 닫으면 남이죠”

**두촌면 천현1리 경수마을 5가구
농사일 도우며 한가족처럼 생활
양보와 배움, 희생 따라야 가능**

홍천군 두촌면 경수마을

홍천군 두촌면 용소계곡 입구 천현리에 위치한 경수마을은 길보기에는 별다른 것 없는 산골 마을이지만 몇 가구 단위로 농사공동체를 이루어 농사를 지으며 산다.

대개 5~6가구씩 모여 농사일을 할 때 함께 한다. 이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품앗이와 비슷하다. 함께 같이 가는 경수마을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과 나누어 보았다.

쉽고도 어려운 농사짓기의 시작

농사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해본 경험이 없는 김수일, 이흥옥 부부는 읍내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사업을 접고 경수마을로 천여 평의 농토와 집을 사서 들어왔다. 농사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는 비닐 덮는 작업부터 쉽게 생각했으나 막상 일을 해보니 마음 같지 않았다. 서투른 이들의 모습을 본 이웃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레 이웃의 5가정이 모여 농사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

가까운 이웃끼리의 농사 공동체

경수마을 윗동네도 그들의 이웃끼리 5~6가정이 모여 몇 개의 농사 공동체를 이루어 일을 한다고 하니 그 전부터 이 마을에는 함께 모여 일하는 마을이었던 것이다.

이들 다섯 가정은 이웃집에서 일을 할 때는 같이 가서 도와주고 서로 오가면서 내 일처럼 한다고 했다. 씨앗을 포트에 넣는 모종 작업을 할 때는 공동체 전체의 필요한 양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 깨를 심거나 옥수수를 심거나 땅에 모종을 심을 때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들 사위 손자까지 오기도 한다. 이때는 일도 하지만 잔치하는 분위기로 화기애애하다. 식사는 부담 없이 맛집을 찾아가서 비용은 그날 일한 가정에서 대접한다.

이런 규칙은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간다. 김수일, 이흥옥씨 부부도 늦게 시작했지만 이웃 덕분에 농사를 잘하는 베테랑 농부가 되었다.

농사일은 노동이지만 모여서 함께 하면 일은 힘들지 않다고 한다. 자녀들이 올 때는 일하는 이웃



분들과 함께 먹을 맛있는 간식들을 사가지고 오면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된다. 동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떡을 해도 나눠 먹고 맛있는 음식을 해도 함께 나누는 정다운 마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런 마을에서 살았으면 하고 부러워진다. 이들 부부는 그런 공동체 생활은 개인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와 배움과 희생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 어려움 없이 기쁘게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요즘 사회에서 혼자서 편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분위기를 잘 견디기 어렵다. 일의 경중을 따지거나 합리적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경수마을은 휴농 때는 마을 경로당에 모여 자녀들이 가져온 것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 종일 함께 논다. 점심, 저녁까지 함께 먹고 저녁때 집으로 온다고 한다. 이런 마을은 공동체 마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다.

농사공동체와 귀촌 공동체의 필요성

귀농하려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귀농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귀농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경우에는 맨땅에 헤딩하듯 고생을 많이 하다가 정착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실을 보면 농사 공동체나 귀촌 공동체가 있다면 정착하여 살기가 좋을 것 같다. 취미동아리도 만들어 동호회에 소속되어 취미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 전국 어느 곳이나 노인 복지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지만 그조차도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귀촌, 귀농한 사람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텃밭 농사와 꽃밭 가꾸기 공동체 만들기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손으로 나무 한 그루 심어본 경험이 없다. 생각했던 전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1.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돕기
 - 발작물의 심는 시기와 방법
 - 1모작 작물과 2모작이 가능한 작물을 심는 기기와 방법
2. 꽃밭 가꾸기,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를 함께

이웃 사촌 맺기

우리들은 좋은 이웃하나 만나므로 삶이 변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도와주면서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도움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 홍천으로 이주한 가정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이웃사촌 맺기는 좋은 모임이 될 것 같다.

마음을 열면 이웃사촌이 되고 마음을 닫으면 너무나 먼 사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끝맺기로 한다.

김순화 기자(hereme50@daum.net)



스포츠

그라운드골프

2010년 회원 22명으로 첫 출발 전국대회 3위 입상 쾌거

지난 6월 12일 홍천읍 갈마곡리 강변 야외경기장에서 상반기 홍천새마을금고이사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홍천군 그라운드골프는 2010년 7월 회원 22명으로 결성되었다. 초대회장으로 노승철 전 군수, 전무이사 안상구 외 임원진이 모여 그라운드골프모임을 시작으로 2016년 동면 내촌분회를 조직하고 2017년도에 남면·서면 분회를 조직하여 강원도그라운드골프협회 인준을 받아 홍천군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하였다. 2017년도부터 홍천군그라운드골프협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135명으로 매년 상·하반기 어르신 그라운드골프대회와 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하고, 각 시·군 및 전국대회 등 연간 10여 회 경기에 참여하여 우승,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18년에는 전국대회에 홍천군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 홍천군 그라운드골프를 전국에 알려 많은 이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홍천군 회원들이 그라운드골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32명이 합격하였으며,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종



◇제7회 홍천새마을금고이사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지난 6월 12일 홍천 갈마곡리 강변 야외경기장에서 열렸다.

대회에 심판요원으로 활약하고 있어 홍천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라운드골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다

그라운드골프는 초보자, 남·여·노·소 구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다. 채와 공만 있으면 할 수 있어 간편하고 가족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놀이이기도 하다. 그라운드골프는 기존 골프를 변형시켜서 만든 골프로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

고 즐길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즐기며 건강을 지키는 최적의 운동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이 적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야외활동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침체된 야외 생활 체육에 활기를 불어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우리 마을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관통 사통팔달 교통 요지중 요지



◇내촌면 척야산 문화수목원에 설치된 조형물들. 사진 왼쪽부터 광개토대왕비, 3.1운동 기미만세상, 발해석등, 여성의병장 윤희순 의병가비.

내촌면은 국도 44호선과 지방도 451호선이 마주치는 곳이며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내촌 IC는 내촌면사무소에서 5·7분 거리이다. 수도권과 영동권으로 향한 접근성이 편리하다. 법정 8개리와 행정 13개리 61개 반이다. 인구 2,372명(남 1,242명, 여 1,130명)이다. 49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주 작물로 옥수수, 감자, 고구마, 콩, 단호박, 고랭지 채소 등이 있다.

동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김창묵(99세)회장은 30년 전에 내촌면 동창리에 임야 18만 평을 매입하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내촌면 동창리에 척야산 문화수목원을 조성하였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안보 교

육장으로, 힐링 장소로 투철한 국가관과 건강을 위한 장소가 되기 위한 취지였다.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탐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장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 회장은 ‘탐방객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수목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곳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과 향기 좋고 건강에 좋은 나무들로 가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척야산은 일제로부터 조국을 되찾으려다 죄인이 되어 풍찬 노숙했던 한 의인을 산자락에서 품어주고 타는 목을 영천수로 축여 준 명산입니다. 척야산 문화 수목원 탐방이 여러분에게 즐거

운 추억이 되고 지난날의 암울한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안내문에 설명하고 있다.

척야산 문화수목원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원석인 광개토왕비문과 신라의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넘어가던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풍치령 정상에는 광개토왕 노래비가 있어 잠시 쉬어가기 좋다. 내촌면 동창리 마을의 기미만세공원과 척야산 수목원은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나들이 장소로 추천한다.



이광명 기자
(shout1700@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약육강식의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도 종족 번식을 위해서는 사명을 다한다.

특히 우월하고 우세한 2세를 만들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수단과 방법으로 종족 번식을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물에 영장임을 자처하는 사람은, 명석한 지능으로 최첨단문명을 이룬 인공지능시대를 열었지만, 무한경쟁에 살벌한 질주와 행복추구의 욕구는 종족번식에 대한 사명은 뒤로 주춤 밀리는 듯하다.

땀과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짓는 사

람이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작물을 잘 키우고, 제품을 잘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구와 실험으로 보다 견고하고 편리하며 위험하지 않고 값어치를 다할 수 있는 작물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고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한날 휴지 한 장이라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일지라도. 심혈을 기울이고 세심한 부문까지

는 독일 사람은 자신들의 2세를 위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부부가 잠자리를 삼간다고 한다.

우리의 조상도 후손의 번창을 위해서 각별하게 지켜왔던 불문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식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배필을 구하는데 상대 가정에 근본을 중시하여 양가에 가정 상황이 적합

있듯이 자식을 갖기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탄생하게 된 서자(庶子 후실이 낳은 자식)이나 서열(庶孽 노비가 낳은 자식)은 나라에서 행하는 과거시험에 응시자격도 안주었던 시대도 있었다.

현대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인권 평등모독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시위하고 탄핵하였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공직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사람 역시 씨앗으로 종족을 이어간다. 흔히 말하는 유전자(DNA)와 환경이 좋아야 좋은 아이가 태어나서 바르게 자라 사람으로 되어지는 데. 이것이 선천적이라면 후천적으로는 바른 교육을 시킴으로써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두어들인다.” 옛 속담에도 이르듯이 애정으로 낳고, 사람 되게 키우고, 인성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좋은 씨앗 바른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고 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후세를 이어나갈 자식을 갖는(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사명일진대 못사람들은 그렇게 신중하지 않고 성욕 본능에 의하여 일을 저지르고 있거나 얕은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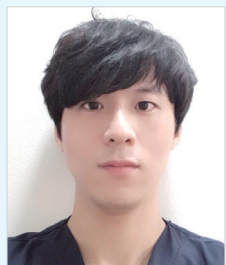
위대한 게르만민족이라고 자부하

하면 매과가 다리를 놓았고 양가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혼을 하였다.

결혼식 날 역시 좋은 날 좋은 때로 택일하고 가족친척친지와 마을 사람에게 알리는 결혼식의 예를 올렸으며, 태어날 후세를 위해서 신랑신부의 합방 역시 좋은 날 좋은 시간을 택일하여 합궁토록 했다.

또한 귀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백일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건강칼럼



김홍일

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과장

무더운 날씨에 어린 자녀들을 위한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족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가족들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어떤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지 미리 예방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력 질환’이란 3대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같은 증상을 겪는 질환을 말하며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사한 환경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에는 아토피, 고혈압, 암 등이 있

고 이와 더불어 ‘통증의 왕’으로 불리는 대상포진도 포함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성 질환이 유행하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각종 질환이 유발되기 쉬워지는데, 그중에서도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와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성화되어 피부 발진 및 통증을 발생시키는 증상입니다.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피부발진이 제일 큰 특징이며, 절반 이상이 등과 가슴, 복부에 수포가 생기

지만 전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곳저곳 발생하지 않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발진과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데, 초기에는 두통, 발열, 식욕부진, 감각이상 등 몸살과 비슷한 증상이 4~5일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띠 모양의 붉은 수포가 나타나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도 문제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대표적 후유증인 ‘신경통’은 약 20%의 확률로 나타나며 극심한 통증이 짧게는 1개월에서 평생 동안 만성으로 나타나기

도 합니다.

대상포진이 걸리면 보통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되지만 초기에 고통이 심하거나 고령인 경우, 발진이 심한 경우, 당뇨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신경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신체 면역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50대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방접종 시 연령에 따라 50~60%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대상포진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과도하게 피로를 요구하는 일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여 평소 면역력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역력 적신호 대상포진

대상포진 초기 증상

